

24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화된 사울

행 9:1~22, 행 26:1~23

은혜찬송 88장 (알았네), 찬양 19장 (어두운 밤 길에서)

오늘 배울



1. 하나님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압니다.
2.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행 9:3~6)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행 9:20~22)



을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바리새인의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어느 유대인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그 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히 분노한 그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에 관한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 때에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스테반을 돌로 치는데 증인 역할을 했으며,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성도들을 고문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사형시킬 때는 찬성투표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곧 이어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복음의 휘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의 위대한 일군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행 9:15~16)

But the Lord said to him, "Go, for he is a chosen vessel of Mine to bear My name before Gentiles,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For I will show him how many things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 (Ac 9:15~16)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예비되었던 배경과 능력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정리해 봅시다(빌 3:4~8, 9~12).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햇빛보다 밝은 빛에 의해 길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행 9:3~18)?

2 강팍했던 바울이 주님의 빛에 의해 무너지면서 심령의 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롬 6:1~20)?

3 우리는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빛보다 어두움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요일 1:5~10, 살전 5:5~6)?

①

②

4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도왔습니다. 세상으로 가 있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대상자	도움 방법

또 형제들이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살전 5:14)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고후 5:17

이

고후 12:12

화

빌 3:7

↑

빌 3:8

↑

빌 3:9

↑

빌 3:12

↑

몬 1:11



루 윌리스의 변화

루 윌리스(1799~1859)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과학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발달된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케케묵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과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기 친구들과 성경을 토론해서 성경의 불합리와 성경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장군이며, 언론인이고, 저술가였던 윌리스는 성경을 손에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사실들과 부딪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 안의 수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연구하면서 성경의 놀라운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과 2장을 썼으나 2장을 쓰다가 자기의 붓을 꺾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는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소설로, 영화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벤허입니다.

질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잡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워지는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마태 26장, 마가 14장, 누가 22장)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하지 않는 대신, 요한은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드린 중보기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 고난을 목적에 둔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를 부각시키고 있는 기도라면, 본장의 중보기도는 이 땅에서의 공생에 사역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메시아적 사역의 완성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앞장에서 이미 선포되었듯이(요 16:24)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요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